



독해진 '범'이 온다

KIA 송은범, 넥센 2군전 5이닝 무실점 피칭 '복귀 시도'

어깨 통증 이상무...마운드 숨통·4강 싸움 '천군만마'

“좋았을 때 느낌이 남아있다.” KIA 마운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활군에서 탈출한 투수 송은범의 페이스가 가파르다. 송은범은 8일 넥센 2군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5이닝 1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하며 기지를 폈다. 지난 4일 SK와의 경기에서 이어 두 번째 등판이다. 앞선 등판에서는 37개의 공을 던지며 2.1이닝 3피안타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었다. 두 번째 피칭에서는 58개의 공으로 5이닝을 처리하며 한층 더 매서운 피칭을 보여줬다. 작구 최고 스피드는 146km. 앞선 등판에서는 148km까지 찍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이 가장 반갑다. 송은범은 지난 5

월23일 롯데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어깨 아래쪽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 내려왔다. 검진 결과 우측 견갑하근 부분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시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송은범이 전반기 막바지를 앞두고 '이상무'를 외쳤다. 송은범은 “부상을 당했던 경기에서 감이 좋았기에 마음이 급했다. 그 감을 잊고 싶지 않았는데 재발 우려 때문에 트레이너 파트에서 재활 속도를 천천히 하도록 했다. 페이스는 좋았다. 검진 결과도 좋다고 한다. 찢어진 부위에 출혈 흔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통증은 없다”고 말했다. 선발 고민에 빠져있던 팀 상황과 맞물려 마음 편치

않았던 시간이었다. 좋았을 때의 느낌을 찾는 경기에서 찾아온 부상이라서 더 속이 뒤틀렸다. 송은범은 “(부상당한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데 팔이 앞으로 쭉 잘 뻗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 그 느낌을 찾는 것 같았다. 사실 2회 박종윤에게 안타를 맞을 때 통증이 왔다.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사지를 받고 다시 등판했는데 3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려왔다. 그 순간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내려왔느냐고 (차)일목이 형이 놀라더라”고 특유의 웃음을 보였다. 또 “좋았던 느낌을 살리려고,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했다. 다행히 부상 후 첫 등판에서부터 감이 좋았다. 100%는 아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가졌던 느낌이 남아있었다. 예전 그 느낌을 완벽하게 찾아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상 후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한 송은범은 오는 13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출전해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출루 본능

추신수 휴스턴전 1안타 2볼넷

악몽과 같은 6월을 보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7월 들어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신수는 7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안타 1개와 볼넷 2개를 묶어 세 차례 1루를 밟았다. 3타수 1안타를 친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50을 기록했다. 출루율은 0.370에서 0.373으로 올라갔다. 텍사스는 지구 최하위 휴스턴에 7-12로 패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세 차례 이상 출루한 것은 시즌 20번째이고 이달에만 세 번째다.

추신수는 6월 타율 0.179, 출루율 0.278로 극도로 부진했지만 돌타자로 다시 공격의 선봉에 선 7월 타율 0.240, 출루율 0.424로 성적을 약간 올렸다. 1회 히트싱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3회 선두 타자로 나와 깨끗한 우전 안타로 출루했다. 2-9로 크게 뒤진 4회 투아웃 1,2루에서는 볼넷을 골라 곧바로 타진 안드루스의 좌선상 짝살이 2루타 때 득점했다. 추신수는 6회 1사 후 다시 볼넷을 얻었으나 득점과 무관했다. /연합뉴스



꽃 단장 '챔피언스필드'

8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3·4층 난간에 띠 전광판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룩 앤드 필' 프로젝트·국내 최장 띠 전광판 공사 진행

챔피언스필드에 새단장이 한창이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4일 원정 6연전을 위해 길을 나서면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가 텅 비었다. 그러나 주인 없는 안방이 시끄럽다. 띠전광판 공사와 놀이방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띠 전 KIA는 개챔피언스필드에 올 한해 60억원을 투입하는 '룩 앤드 필(Look & Feel)'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프라를 확충·보완해 메이저리그 구장에 버금가는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방침. '룩 앤드 필' 프로젝트에 따라 KIA는 선수단·클럽하우스 출입구, 메인 로비 등의 외관을 꾸미고 메인 출입

구에 대형 사인물을 설치했다. '호랑이 군단'이 자리를 비운 동안 예고됐던 또 다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장 길이의 띠 전광판이 공사의 핵심이다. 다양한 경기 정보 제공을 위해 3·4층 난간 사이에 149개의 리본보드(띠 전광판)를 설치하고 있다. 17.92m 길이의 리본 보드가 146개, 10.24m·7.68m의 리본 보드가 각각 2개, 1개씩 위치한다. 총 길이만 해서 265m. 16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1루는 물론 3루 전체에 띠 전광판이 들어서면서 메이저리그 구장급 위용을 과시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띠 전광판은 오는 1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시험가동 된다. 울스타전에서도 운영된 뒤 오는 22일 LG와의 홈경기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4·5층 난간 중앙에는 'Welcome to KIA-Champions Field' 문구가 새겨지고, 1·3루 끝 부분에는 플레이 하는 모습의 실루엣이 그려진다. 경기장 외벽과 기둥에도 선수들의 이미지를 넣어 야구장 분위기를 더할 계획이다. 가족팬들을 위한 공간도 단장에 들어갔다. KIA는 3층 1·3루 양측에 마련, 운영했던 놀이방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특히 3루측 수유실과 놀이방은 공간을 터엄마와 아이가 경기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격 머신

이대호, K리그 6월 타자 MVP

소프트뱅크 호크스 한국인 거포 이대호가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6월 타자 부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일본 프로야구 진출 후 세 번째 월간 MVP 수상이다. 일본야구기구(NPB)는 8일 퍼시픽리그와 센트럴리그 최우수 타자·투수 총 네 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대호는 6월 18경기에서 타율 0.400(75타수 30안타) 3홈런 14타점을 기록해 퍼시픽리그 최고 타자로 꼽혔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12년 5월과 7월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으로 월간 MVP를 수상했던 이대호는 2년 만에 세 번째 트로피를 쟁겼다. 퍼시픽리그 투수 부문에서는 노리모토 다카히로(다쿠엔 골든글로브)가 MVP로 선정됐고 기구치 료스케(히로시마 도요카프)와 야마구치 슌(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이 센트럴리그 타자와 투수 MVP에 올랐다. /연합뉴스



지지부진

우즈, 세계랭킹 2계단 하락 '7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남자골프 세계랭킹 7위로 밀렸다. 지난주 세계 랭킹 5위였던 우즈는 7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7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우즈가 7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것은 2012년 5월 9일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우즈는 3월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다 지난 달 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른론스 내셔널에 출전했으나 컷 탈락했다. 그는 17일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애덤 스콧(호주),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비바 왓슨, 맷 쿠처(이상 미국) 등 1위부터 4위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제이슨 데이(호주)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5,6위가 되면서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7,8위로 밀렸다. 제미교포 케빈 나(타이완리스트)가 39위, 최경주(SK텔레콤)는 68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아웃' '세이프'도 비디오 판독한다

KBO, 후반기부터 도입

올시즌 심각한 판정 논란을 겪은 프로야구가 후반기부터 심판의 고유 권한인 '아웃·세이프' 등에도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인천에서 10개구단 이사 간담회를 열고 후반기부터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야수의 포구' 등에도 비디오 판독을 통해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프로야구는 2009년부터 홈런 타구에 한해서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심판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시즌 심판 판정에 대한 각 구단 감독의 반발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KBO는 이사회를 통해 후반기부터 즉각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O는 오는 14일 규칙위원회를 소집해 '판정은 심판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된 규칙 9.02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비디오 판독을 어느 부분까지 확대하느냐, 경기 중 비디오 판독 요청을 몇 번 허용하느냐 등 시행세칙은 감독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KBO는 이날 이사회에서 팀당 경기 수를 현행 128경기에서 내년 144경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프로야구는 2009~2012년 팀당 133경기를 치렀지만 지난해 9구단 NC 다이노스가 가세하면서 홈수 체제가 되는 바람에 올해까지 경기 수를 5게임 줄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10구단 KT 위즈가 1군 리그에 합류함에 따라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를 편성하기로 했다. 또 10개 팀이 되면서 1~4위가 참가하는 포스트시즌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4위와 5위 간의 게임차가 1.5게임 이내일 경우에는 단판 승부의 와일드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